
2022-2학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속기록

2022-10-13(목), 102관 3층 대강당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회의 시작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입장하고계시는 대표자분들이 계시기에 기다렸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참석 대표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하는 대표자들이 계시기에 기다렸다 시작 할 예정입니다. 입장하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착석하시어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재적대표자 367명중 262명으로 개의정족수 184명 넘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9시 20분으로 2022-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이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겸 통일공대 학생회장 배성호입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의장의 개회선언에 따라 2022-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학대회의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겸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류동현입니다. 이번 회의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 안건으로 2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 개정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진행하고, 보고안건으로 집행위원회, 각 위원회 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먼저, 회의 진행 방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의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해당 회칙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하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실 수 있으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부연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의 경우, 5분 이내, 3인 이하로 하며, 의사진행발언은 2분 이내로 하실 수 있고,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1회로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방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세칙에 대해 읽고 숙지하실 수 있는 시간 1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부여드린 1분 경과했습니다. 질의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첫번째 의결안건으로 2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별로 배정한 학생회비에 대해 총학생회 회칙 제57조, 제58조에 의거하여 학생회비 확정 및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먼저,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년과 동일하게 기타납입금 9,500원 중 기본배정액 4,400원, 역비율 환산액 250원, 추가 배정액 200원, 총학생회 3,520원, 동아리연합회 880원, 전학대회비 250원으로 산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납부 인원 6,396명으로 단과대학 배정액 31,020,600원, 중앙단위 총액 28,142,400원으로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부여드린 시간 경과했습니다.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안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은 비표를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가 없으므로 2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내 첫번째 의결안건으로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 의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266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2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표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회비 및 예산자치제 이월금, 회칙에 규정된 2학기 예산자치비, 학생회비, 전학대회비를 포함하여 총 수입은 51,278,410원이며, 지출 예정금으로는 예산자치제, 전학대회비 외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10,000,000원, 문화위원회 축제 지원 예산 13,000,000원, 인권복지위원회 5,000,000원, 장애인권위원회 1,300,000원, 졸업준비위원회 200,000원으로 총 지출 예정금액은 34,398,333원입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 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질의사항이 있어서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30초 간 검토 이후에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2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입니다. 자료집 8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ppt자료의 숫자가 달라서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불어서 7쪽에 단과대학 배정액도 ppt의 자료와 자료집 자료가 상이했어서 ppt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집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자료가 정확한 자료이니 자료집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pt제작 상의 오류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내 두번째 의결안건으로 2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 의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66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전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감사위원회는 2019년 학생회비 감사기구로서 설립된 이후 잦은 위원장 및 위원의 사퇴 및 수차례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위 회원 외 감사권 부여에 따른 자치권 침해, 피감사기구의 감사기구 선발에 따른 기구의 모호성 등 중감위의 체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1-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논의 안전에서 다루어진 ‘중앙감사위원회 지위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64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감위의 개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안전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의 내용을 담은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결의’ 안전이 가결되었습니다.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폭넓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중감위 체제 개편 TF는 2021-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감위의 문제점 분석, 중감위 설립 배경 및 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감위의 순기능 분석, 중감위의 존립과 폐지를 비롯한 체제 개편 논의, 중감위의 폐지 이후 순기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논의 등 중감위의 지위와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중감위 체제 개편 방안 마련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64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감위 체제 개편 TF의 의견을 존중하며,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중감위 체제와 운영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여 이와 같이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전을 상정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전의 첫 번째 의결안전으로 중앙감사위원회 폐지 안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감사위원회는 비회원에게 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치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으며, 기구 설립 당시(2019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부터 이와 같은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2021-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감사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를 보고하여 각 단위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자치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학생회비 감사의 주체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과부 또한 각 학과(부), 단과대학, 총학생회 차원에서 회계 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으며, 매 학기 회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의 중복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각 단과대 운영위원회(피감사기구)에서 중앙감사위원(감사기구)을 선발하는 방식은 제도적 장치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에 더하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중앙감사위원장 및 위원이 편제에 맞지 않게 선발되었고 미달되어 감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구의 실질적 목적 달성 및 운영이 불가하였고, 2022-1학기 정기감사 역시 중앙감사위원회의 발의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학생사회 내 중앙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사퇴와 활동 중단 상황 등은 오히려 학생사회 내 혼란을 가중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설립 당시 목적과 순기능을 충족하고자 중앙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총학생회 회칙 내 제58조의 4 (회계 감사) 조항을 제정하여 순기능 및 장점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 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 폐지 안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중감위 체제 개편 결의안이 1학기 학운위 때 가결이 되었을 때 저는 TF에 기존에 남아계시던 중감위원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집에 나와있는 TF 구성원에는 기존 중감위원분들이 안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폐지 안전이 상정된 것에 기존 중감위원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위를 3월 말에 진행하고 나서부터 중앙감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체제 개선 TF의 운영을 위해서 의견을 위촉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하였습니다만은 모든 단위의 위원분들께서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8월 15일에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저희가 연락처가 닿지 않는 이후에도 전체 공지를 통해서 모집을 진행하게 된다면 참여하실까 싶어서 전체 학우 대상 모집 진행 하였고, 그 이후에도 모집이 진행되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구성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다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안전에 대해 찬성하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감사위원회 폐지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67명 중 찬성 263표, 반대2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의 두 번째 의결안건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칙 제4조 삭제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감사위원회 근거 조항에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해당 안건 원안에 대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부칙 제4조 삭제의 건 의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68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의 세 번째 의결안건으로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파기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칙 제 4조에 의거한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 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대표자분들 비표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원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해당 안건 원안에 대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기권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파기의 건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인원 265명 중 찬성 26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해당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의 네 번째 의결안건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58조의 4 제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력, 회계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올바른 회계 문화 형성 등 중앙감사위원회 설립 당시 목적과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중앙감사 체제의 순기능 및 장점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중앙감사회의를 구성하여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단위의 대표자 또는 단위별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중앙감사회의를 구성하고, 매 학기 초 중앙감사회의를 소집하여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자 합니다. 중앙감사회의의 업무는 예,결산안 작성요령 및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 매월 결산 보고 방식, 회계 감사 요령 등이 포함된

회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위별 회비 결산 내역을 검토하여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전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 4학년 대표 위혜진: 중앙감사위원회 폐지 이유가 자치권 침해였는데 중앙감사회의를 다시 두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감사위원회는 자치권 침해라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만 그 순기능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순기능은 회계 투명성 보장 노력과 회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감사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정하고자 하는 문항에서 제58조 4에서 제 2항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중앙감사회의의 주 목적은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과 투명한 회비 집행일 뿐 이전 중앙감사위원회의의 목적인 감사에 있지는 않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찬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현: 여기에 비대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4항에 보면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밑에 추가로 ‘비대위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한다’ 라는 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수정안 채택에 대한 의결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채택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63명 중 찬성 224표, 반대 18표, 기

권 20표로 해당 수정안은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대표 김린: 총학생회칙 제16장 중앙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단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같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이게 추가되는 게 맞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제안해주신 제안자 분께서 답변 진행하시겠습니까?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수정안을 발의해주신 분께 마이크 먼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현: 소속을 다시 밝혀야 하는 건가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현: 중앙감사회의라는 항이 추가되는 만큼,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는 만큼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업무를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저도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전전 4학년 대표자 분과 같은 맥락으로 74조에 의해서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7조 전학대회 비롯 얘기에서 해당 내용 대행하는 부분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후 전학대회 때 30조 임무 권한을 추가하고 74조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회칙의 전체적 맥락에서 해당 부분만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안을 철회해도 되는 건가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수정안 철회를 진행을... 잠시만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철회하실 경우 철회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해야 해서 추후 수정안 의결을 진행할 때 의사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한 분 더 질의 가능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61명 중 찬성 2표, 반대 225표, 기권 27표로 해당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원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58조의 4 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62명 중 찬성 251표, 반대 5표, 기권 6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자료집 15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탈자, 띄어쓰기 수정 및 현행과 맞지 않는 회칙 내용에 대해 현행에 적합하도록 구체화를 통해 학생회 측과 본 학생회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으로 제 14조의 2 일부 개정의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27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탄핵 심판에 대한 근거가 잘못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를 제14조의 2항에 의거하는 내용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칙에 의거하여 의결 진행 중에는 이동이 불가하오니, 의결 진행 중일 때는 잠시 대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부여된 시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 25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 내 두 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17조 일부 개정의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28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회칙 내 총,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를 위해 개의회는 전학대회의 의장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 의장으로 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진행자의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역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 진행자로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이 모두 경과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희망자가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 258명 중 찬성 25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내 3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61조 일부 개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항 내 각 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조항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5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해당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4번째로 제62조 일부 개정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 1항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빚’을 의미하는 ‘궤위’가 ‘궤위’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해당 단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2항 내 조항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제62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57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해당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내 5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77조, 제80조 제81조 일부 개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3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인 ‘총투표’가 제77조, 제80조, 제81조 내 ‘총 투표’로 장 명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77조, 제80조, 제81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56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학과 4학년 대표 위혜진: 사회학과 4학년 대표 위혜진입니다. 개회한지 1시간이 넘게 지나

서 쉬는시간을 지금 갖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다른 대표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아직까지 의결 안건이 반 조금 넘게 남아있긴 합니다. 저희가 입장하고 퇴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해서 엑셀 시트 옮기고 비표를 받았다가 다시 배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쉬는 시간 넉넉하게 20분 정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가실 때 비표 반납과 엑셀 시트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성함을 명확히 말씀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간 20시 45분으로, 20분간 휴게 가지고 21시 05분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시면서 비표를 스태프에게 반납해주시고, 퇴장하시는 대표자께서는 스태프들께 비표 반납과 퇴장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장 시 스태프로부터 다시 비표를 받아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자수 184명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 회의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석 부탁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시간 21시 3분입니다. 회의 재개까지 2분 남았습니다. 대표자 분들이 착석하시는 대로 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입장하신 대표자분들은 원래 자리에 맞게 착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21시 05분으로 예정되어있는 회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강의장 내로 들어오시는 대로 강의장 문을 닫고 정족 수 확인 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착석해 계시는 대표자분들은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의사정족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착석해 계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잠시 정숙하신 상태로 대기해주시면 신속하게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 진행 중에 찬성 비표를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발언 이후부터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까지 의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착석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의결 상의 숫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적대표자 367명 중 의결대표자 223명으로 의사정족수 184명을 넘어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이어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세칙 변경 개정의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32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예림: 다름이 아니라, 지난 학운위때 저희가 수정안이 안으로 상정이 되면 그걸 철회할 지 의사를 묻고 별도의 의결 없이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수정안 발의해주신 분께서 철회 가능한지 여쭙봤을 때 철회의결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의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수의 수정안이 나왔을 때, 그걸 철회할 때 마다 의결이 필요한건지 여쭙보고 싶고, 사실 수정안 철회에 관한 내용은 세칙에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의결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말씀해주신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칙이나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수정안이 발의되거나 수정안 철회의사가 밝혀질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단독방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중앙운영위원회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탈자, 띄어쓰기 수정을 비롯하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내 규정된 줄임말을 현 세칙 내에도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장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부칙으로 제정하여 회칙의 구성을 바로잡아 본 학생회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첫번째 의결 안건으로 회칙 명칭 개정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4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1조에 의거하여 본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학생은 각기 총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으로 회칙명을 변경한 사유와 동일하게 선거시행세칙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으로 세칙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칙명 변경과 동일하게 1조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의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띄어쓰기와 줄임말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61조와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명 내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줄임말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61조와 같이 중선거위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명칭 변경을 세칙에 적용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대표 김린: 다름이 아니라 목차 상 3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시행세칙 건에 대해 부차적으로 12개의 의결안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제안설명처럼 오탈자나 띄어쓰기에서만 수정이 이뤄질 것 같아서 12개를 묶어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한 번에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조항 별 개정을 진행하게 된 까닭은요, 22-1학기 대표자 회의에서 장 별 의견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조항 별 개정이 적합하다는 대표자 분들의 판단이 있어서 의결 이후 장 별 개정에서 조항 별 개정으로 변경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회칙을 각 조항 별 개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대표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의견이 있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오탈자와 띄어쓰기 개정이기 때문에 장별 개정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전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원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표자 여러분의 의견을 거친 이후에 현 장 별개정이 되어있는 것을 세칙전체개정으로서 묶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거나 동의 혹은 반대 의사가 있으신 분은 비표를 들어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별 의사결정이 좋을까요 세칙 별 의사결정이 좋을까요? 반대 의사가 있는지 여쭙보고 의사 진행 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사를 밝히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돼서 안내를 드리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차 상 중앙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해당하는 1번부터 12번의 열 두개의 의결 안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는 전부 오탈자 또는 띄어쓰기 개정에 해당하고 12번에는 부칙 개정의 건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안전을 추가적으로 상정하거나 삭제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의결이 진행 되어야 하므로, 라 전체를 세칙개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고, 세칙 전체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결된다면 라 중앙대학교 선거세칙 개정을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1번부터 12번을 한 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된다면 원안으로 상정되어 있는대로 1번부터 12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내용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내용은' 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세칙 전체 개정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의결안건 '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세칙

전체 개정으로 한다.’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세칙 전체 개정으로 한다.’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 225명 중 찬성 221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해당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안전이 가결됨에 따라 라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1번부터 12번을 모두 합쳐 페이지 32쪽부터 46쪽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신 건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예림: 원안으로 상정된 안전들을 한 번에 의결한다면 원안으로 상정된 안전들을 전부 삭제하는 의결을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2021-1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기존에 상정 되어 있던 장 별 내용을 어떤 걸로 세분화하고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바꿀 때 의결했던 선례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선례에서 단순히 상정되어있던 원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분화해서 결정한 것인지를 과반수 의결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건가요?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예림: 추가질의가 그렇게 되면 ‘선거시행세칙 전체를 개정한다’로 의결명이 되면은 원안으로 상정된 12개의 안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1번부터 12번이 한 번에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선거시행세칙으로 되어있는 내용들 중에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해 선택을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별로 개정을 진행했을 때와 세칙 전체로 개정을 진행했을 때의 장단점은 수정안이 더 많이 발의된 경우에는 세칙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렸던 내용에서 단순 오탈자나 띄어쓰기 개정이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 있어서 크게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칙 전체를 1번에서 12번까지 한 번에 묶어 진행하는 방금 의결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없다면 말씀드린 대로 32페이지에서 46페이지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 4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임미래: 아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안건이 채택이 되고 수정안이 철회하는 것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카톡방에서 그때마다 의결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중앙운영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 안건을 다 한번 결정을 하고 이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행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해당내용마다 철회할지 말지의 의결진행이 아닙니다. 회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니 그 상황이 왔을 때 회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부여드린 4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의결안건 라 중앙대학교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질의및 답변 질의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 4학년 대표 위혜진: 8조의 2의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되어있고 부칙 1조 바. 중앙선거위원회라 되어있어 같은 의미인데 다른단어로 적혀있습니다. 수정안 발의라기보단 어떤 단어가 적합할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조항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 4학년 대표 위혜진: 8조의 2 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칙 1조 바의 중앙선관위원회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 수정발의가 아니라 어떻게 좋을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말씀해주신 8조의 2에 나 외에도 가에도 중앙선관위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단어 9조 나항 중앙선관위원회라 줄임말 처리가 되어있고, 부칙 제 1조 바에는 중앙선관위라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같은 의미로 보이나, 세칙 내 오탈자의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전체 회칙을 검토하여 모든 오탈자를 찾아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자체적으로 수정

안을 발의하고 채택하고 의결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 질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전학대회의 속기록으로 기재하고 다음학기 대표자 회의에서 점검하고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나 수정안 발의의사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의사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제출된 수정안 없으므로 원안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라.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세칙 전체 개정으로 한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27명 중 찬성 223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시행 세칙 개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74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내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본회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 세칙 개정의 첫번째 의결안건으로 제 3조 일부 개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칙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및 확대운영위원회 등 학생대표자회의에 적용되는 세칙입니다. 또한 확대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역시 회의 동안 그 내용을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세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 동안 검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제3조 일부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원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안건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30명 중 찬성 23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개정의 2번째 의결안건으로 제3조 일부 개정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안건명이 제3조 일부 개정의 건이 아닌 제13조 일부 개정의 건으로 오탈자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안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특별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자 토론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세칙 상 출석인원 1/2로 규정되어있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의결이 통용되는 과반수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모든 내용을 30초 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제13조 일부개정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29명 중 찬성 229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심의 안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무국장께서는 보고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해 의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탈자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 85번 배송비를 보시면 금액이 아닌 #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회비 회계내역 엑셀 파일을 한글 파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숫자가 깨진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85번의 경우에는 배송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번과 181번도 같은 사유로 파악되어서 180번은 10만원, 181번은 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번의 경우 총 금액 137만 정정하겠습니다. 13만 7천 4백원은 동일하나 옆의 갯수에서 22900원 두개가 아니라 6개로 정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이후 지출한 학생회비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 예산안에 맞추어 집행하였으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화 한 내용을 재선거 무산 이후 재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3분간 검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현: 학생회비 사용내역 18번 체크취소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취소되어 입금되었는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회계사무국장 김창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결제된 내역에서 취소된 것입니다. 체크취소입금= 부분환불된 것입니다. 위 자료집엔 없으나 22년도 확대운영위원회 자료집에서 21일 46번 장애인권위원회 개강 맞이 이벤트 상품 카톡 기프티콘 선물 제한 기한 내에 쿠폰 번호 입력하지 않아 발생한 환불입니다. 학생회비로 입금되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비표를 추가적으로 들어주신 분이 많은데 추가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어진: 체크취소 입금이 추가적으로 2-3개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314번이나 109번에도 있습니다. 확인 가능할까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내용 모두 동일한 내용.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번호 일정기간 이후 자동적으로 입금한 쪽에 환불, 상품 수령하지 않은 학우분들로 인해서 해당 금액 모두 환불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임미래: 20, 21번 비고가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281번이랑 총 학생회비 입금 282번에 동일한 항목이 입금되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안성캠퍼스 비가 서울캠퍼스 비에 어떻게 입금된 것인지, 어떻게 반환된 것인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20,21번에 비고란의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이 맞습니다. 20번이 21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해주신 안성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기타납입금 이전된 경우, 해당 인원이 안성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전과하는 인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 절차에 의해 안성캠퍼스에 납부되었던 금액이 해당 인원이 전과한 학과로 확정된 내용에 맞추어 학생회비가 배부되었습니다.

현재 한 분 더 질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 경우 추가적으로 의결을 하고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총 세 분 있으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학운위 이후 회계 항목이 332가지나 되는데 3분안에 살펴보는 것 무리 판단됩니다. 다른 대표자 분들께서 회계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추가 질의를 한명만 원하시지만 그 과정 속 추가 질의를 계속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 회계 내역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전학대회 말고는 더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계 내역의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결정을 통해 추가적인 질의 없도록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저희끼리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세칙에 규정된 것이므로, 세칙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회의 진행 중인 관계로 바꾸기 어

럽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질의하셨던 분들 추가적으로 계시냐 물어봤던 것은 한분씩 발언권이 추가하게 되면 의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분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추가 요청이 있다면 그 때 추가 요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발언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비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두분이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발언추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두 분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25명 중 찬성 216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해주시겠습니까?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명수현: 자료집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320번 2022-2학기 가을농민연대활동에 책자 인쇄 300부가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책자가 300부로 배부되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농활을 진행함에 있어 예년과 동일하게 농활 일지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농활 참여 인원들에게 출발 당일에 배부하였고, 그 인쇄비용이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의 요청하신 분계실까요?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대표 김린: 230번 보시면 거리부스 현수막이 75부 주문 후 취소되었다가, 묶음배송 불가로 이후에 같은 부스 같은 사이즈의 현수막이 110만원으로 재주문 되었습니다. 어떻게 20만원이 추가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사무국장 김창은: 환불 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수막 주문 할 때 거리부스별로 이름이 다르다보니 75개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75개 일일이 주문에 어려움이 있어 75개를 한번에 주문하였고 75개의 일러스트 파일을 한번에 보냈으나 업체측에서 묶음 불가라고 하여

환불을 받았고, 묶음 배송이 아닌 개별 주문하다 보니 기존 75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여 이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묶음 주문으로 할인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여 개별 구매에 의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관련하여 추가질의 계실까요? 두 분 계시고요. 추가질문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2인에 대해 발언권 추가하는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22명 중 찬성 208표, 반대 6표, 기권 8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아까 비표 들어주셨던 분 중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응용통계학과 2학년 대표 홍영준: 자료집 315번을 보시면 쿠팡 주식회사에서 탐사수 무라벨 500ml 20개입 37,110원 구입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쿠팡에서 약 1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제가 확인한 것의 가격 차이의 괴리가 커서 질의 요청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내용에 대해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당 내역은 88페이지 315번에 해당이며, 무라벨 500ml 60개입 3개 구매해서 해당 가격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총 180개 구매한 것이 해당 금액이고, 60개입 3개 구매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아까 추가발언 요청하신 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 네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같은 항목인데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69번과 91번을 봤을 때 봄 대동제 중앙 비대위 쉼터스 거리부스 물품 구매이라는 같은 항목인데 69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고, 91번의 거래처는 거래처가 업체명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무국장 김창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69번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종이컵이라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종이컵에 대해서 업체에 주문한 것입니다. 91번의 경우에는 부스를 진행하다보니 종이컵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빠른 판단을 통해 흑석동 학교 근처에서 구매하여 해당 항목을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답변이 되셨을까요? 기존의 700개 아이스크림 종이컵으로 구매했다가 수요가 많아져서 현장에서 추가적인 구매가 필요했고, 해당 아이스크림 종이컵은 특수제작된 종이컵이라 같은 거래처에서는 신속하게 구입이 불가능하여 종이컵 200개를 가까운 마트에 대체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질의 있으신 대표자분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비대위 체제이지만 대면학사에 맞추어 많은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회비가 지출되었고, 다양한 항목에서 학생회비 사용하였음. 대표자 분께서 많은 관심과 질문 감사드리고, 해당 내용은 전학대회 3일 전부터 앞으로 계속 중대중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매달 회계내역 확인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 총학생회 sns 질의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보고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각 위원회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중앙집행위원장단 보고를 위해 중앙집행위원장은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의사진행 발언해주십시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생회장 홍성재: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결안건에서 추가 상정 가능한가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가능합니다만, 참석인원 2/3가 찬성하여 안건을 상정한 후에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건 추가 상정하시려는 건가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생회장 홍성재: 총학생회 회칙 30조 2항에 항에서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내용에, 중앙감사회의를 포함시키는 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내용 확인 하였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9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생회장 홍성재: 2항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2항에서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에 중앙감사위원회 의장을 추가로 상정해주셨습니다. 안전 추가 상정에 대한 내용은 전학대회 제10조에 의거하여 찬반 토론 없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찬반토론 없이 진행되므로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안전 추가상정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추가 상정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추가 상정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추가 상정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217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표, 기권 18표로 해당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안전 추가상정에 대한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전에 대한 질의 있으신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혹시 어떤 발언이시죠? 찬성 토론자 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 토론자에 희망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 반대 토론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찬반토론이 성립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의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입니다. 수정안이 발의되고 대표자 분들

께서 이 안이 옳은지 판단하시기 전에 ppt를 보고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직 ppt에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ppt에 반영이 된 이후 진행해도 될까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제가 뒤가 안 보여서요. 바로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30조에서 중앙 감사 회의가 추가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 희망자가 있는지 의사를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희망자 있으신가요? 반대 토론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찬반토론은 성립되지 않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214명 중 찬성 209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해당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결 안건 상정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보고 안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의결 안건과 섞이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보고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국장단 업무 보고 이후 각 위원회의 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중앙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 안건으로 중앙집행위의 보고를 위해 중앙집행위원장께서는 보고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집행위원장 임화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중앙집행위원장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9학번 임화현 학생 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상 최고 집행기구로서, 모든 진행 사업을 기획, 검토, 관리하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 및 집행하여 학우분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안성캠퍼스와의 월별 협의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서 양 캠퍼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우분들께서도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6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양캠퍼스 월별 협의체를 진행하였고, 각 학사 정기 협의체에 대한 논의와 가을 축제에 관한 사항들을 공유하였습니다. 7월 월별 협의체에서는 2차 학사정기협의체에서 다뤘던 주요 안건인 한자 졸업요건 폐지와 더불어 D학점 의무부과제도 폐지, 졸업이수학점 조정 등 학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어서 8월 월별 협의체에서는 중앙대학교 축제 브랜드화를 위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학기 개강 행사입니다. 전면 대면 학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학우분들께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여 굿즈로 배부하고 주요 학사 문제에 대해서 학우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 개강 인사는 9월 7일 107관 학생회관 앞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푸양 굿즈 약 1,000개를 배부하였고, 더불어서 한자 졸업요건 폐지 이후에 학우분들께서 어떤 학사 현안에 대해서 가장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개강인사에서 다뤘던 사업들은 이후 교육자치국 그리고 홍보소통국에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집행위원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중앙집행위원장의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대표 김린: 네, 전전 4과대 김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학칙상으로 규정된 총학생회 국장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집행위원장, 차장, 국장들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중운위에서 받은 의결이랑 학교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랑은 절차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둘 다 7명으로 등록되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저희가 중비대위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구요. 재선거 이전에는 최소한의 인원수로 진행을 하기 위해 국을 합쳐서 3개의 부서로 운영했었고, 이전에 운영되었던 전략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회장단이 약속한 공약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에 중점을 이루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5개 국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장의 장학금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학교에서 이만큼의 국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생자치 내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본관 회칙에 의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을 거쳤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질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보고를 위해 교육자

치국장께서는 보고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국장 서예나: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교육자치국장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20학번 서예나 전체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교육자치국은 학우분들이 올바른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학사, 교육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집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치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자졸업요건 완화와 학사정기협의체입니다. 5월 24일, 8월 11일, 총 2번의 학사정기협의체인 열린학사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대표자 및 실무진들이 학사 운영 방식을 비롯하여 한자 졸업 요건 폐지, D학점 의무 부과제도 폐지, 졸업 이수 학점 조정 등의 안전에 대해 학교 본부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자 졸업 요건 폐지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전공 계열 무관 한자 자격 4급 취득 및 자격증 유효 기한 제한 없음,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라는 완화된 한자 졸업 요건 확정을 답변받았습니다. 이는 9월 22일 교무처의 공지를 통해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자 졸업 요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완화된 한자 졸업 요건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한자 졸업 요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D학점 의무 부과제도 폐지, 졸업 이수 학점 조정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내부 회의를 거쳐 3차 학사정기협의체 후속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중심 유지 및 보수입니다. 포탈 접속 문제 해결, 비밀번호 변경 기능 추가, 중대중심 가입 승인/미승인 메시지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중대중심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중심 운영창구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학우분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바로잡기 및 교양과목 강의 주차별 피드백입니다. 학우분들의 더 나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양과목 개설 강좌 강의계획서 중 미작성 혹은 내용 부실 강의계획서에 대한 신고창구 구글 폼을 운영하고 교양 강의 관련 피드백을 조사하여 강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 전달을 위한 포스터 및 카드뉴스 배포입니다. 학우분들께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안내, e-advisor 및 레인보우시스템 알아보기, 수강 신청 일정 및 변경사항 안내, 대면 수업 안전관리 지침 안내, 단과대별 역량강화장학금 시행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내 휴게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4일 간 진행하였던 [중앙도서관 휴게공간 조성 사업 관련 학생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부처와의 논의에서 중앙도서관

휴게공간 조성에 학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논의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중앙도서관 3층 참고자료실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2022학년도 겨울방학 전까지 개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휴게공간에도 학우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국 보고안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교육자치국장 보고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보고를 위해 연대사업국장께서는 보고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사업국장 강성구: 연대사업국장 강성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대사업국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계층과의 의사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계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편의와 권리를 위한 제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사업국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제휴 사업입니다. 여러 업체들과 일정 기간 제휴를 맺는 사업을 통해 중앙대학교 학우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할인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휴 사업 관련 내용은 자료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응급의약품 사업입니다. 건강센터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약품 창고를 운영함으로써 학우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도서관 1층 3구역 29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학우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 스프레이, 부착형 파스, 붕대, 연고 등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부족한 응급의약품을 확인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물함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채널의 자동응답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응급의약품 나눔창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민학생연대활동입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은 농촌과 도시의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현안이나 농민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직접 농촌에서 일하면서 농민분들과 한층 더 깊게 교류하고, 농촌사회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부상한 여름에는 학우분들과 농민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 농활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활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하는 <여름농활 십자말풀이>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농활의 활동들을 접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3박 4일간, 3개의 단과대 및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을 현장 농활을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지속하던 충청남도 아산을 중심으로, 충남 당진, 충북 충주시의 15개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 농활을 진행함으로써 농민분들과 한층 더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내 노동자 연대활동입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여러 청소 노동자, 방호 노동자분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며 힘써주고 계십니다. 학내 노동자 연대활동은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학내 노동자분들의 노동생활을 돌아보고 노동자분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학내 노동자분들의 휴게환경 및 노동환경 등 시설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건물의 방호/청소 노동자 휴게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와 협업하여 8월 중, 전수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휴게환경을 위해 학교 본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페인 사업입니다. 5월을 시작으로 학내 노동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 차원에서 노동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듣고 분리수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9월에는 서울캠퍼스 내 학우분들이 지켜야 할 실천사항에 대해서 화장실 내 및 건물별로 부착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더 나은 학내 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캠퍼스 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대사업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연대사업국장의 보고안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김구한이: 이번에 자연과학대학이 충청북도 충주시와 원당 마을에 농활을 다녀왔는데요. 농활은 이름과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학생대표자 안전 교육에서도 말씀 해주셨듯, 참여 어르신들께서 농촌 봉사활동으로 알고 계셔서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알고 싶고, 마을 어르신들께서 농활을 왜 왔냐는 등 안 좋은 말씀 몇 번 해주신 게 있어서 마을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농활 진행함에 있어 학생과 농민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대를 쌓아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시간동안 농활이 진행이 어려웠고 이번 가을 들어 처음 하다시피 되어있었는데 이전에 이어지던 연대가 이어지지 않지 않거나 싶고, 이장님들께 이장님들께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한 농민 연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전달 했는데 마을 내에서도 의사소통 문제라던가 이장님과 소통이 되었지만 일을 할 때 있어서는 다른 농민 분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농민분들과의 불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활 갔다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활 관련 피드백 받을 예정이고 추후 활동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일상복지국장께서는 보고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상복지국장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일상복지국장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0학번 박수연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일상복지국은 학우분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내 환경과 안전 개선을 통해 교내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상복지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2-1학기 기말고사 야식판매사업입니다. 학우분들께서 학업에 몰두하는 기말고사 기간에 식사를 위한 이동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우분들의 시험 기간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 8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야식판매사업을 진행하여 모든 물품이 판매 하였으며, 동서식품에서 협찬받은 커피 2300개를 학우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2학기 교내 및 교외 불법카메라 전수조사입니다. 이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개강 직전인 8월에 중앙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함께 정기조사를 진행했으며 9월 16일, 동작경찰서 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상도역 역사 내 화장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탐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시 불법카메라 의심신고를 받아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내 셔틀버스 어플 및 시설 개선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교내 셔틀버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셔틀버스 어플의 가독성을 위해 회차 표시 추가가 완료되었으며, 내부 시설 중 하차벨 설치 및 행선지 표시 카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바탕으로 교내 셔틀버스 운영 개선 요청안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주무 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관 시설 및 생활 운영 개선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8월 26일 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생활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던 기숙사 식당 재운영에 비롯하여 세탁실의 건조기 추가, 의자 등 낙후된 시설 개선, 혈관인식 재개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와 함께 개선 요청안을 기반으로 10월 6일에 학교 본부와 논의를 진행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고, 낙후된 의자 교체, 손등혈관인식 등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내 AED 안내 캠페인입니다. 9월 21일 현재 교내에 비치된 비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학우분들께 알리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교내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약 150명의 학우분들께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주셨으며, 행사 종료 후 AED 사용법 및 위치 상세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총학생회 SNS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혈용품 지원사업입니다.무상으로 배치된 생리대를 통해 학우분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에 월경 전문 서비스 브랜드 이지앤모어로부터 생리대 240박스(총 2,880개)의 제품을 협찬받았습니다. 현재 공유 생리대함 방식으로 102관 1층, 207관 2층, 303관 6층, 310관 지하 5층, 310관 3층 총 5곳의 화장실에 배치한 상태이며 3주

간의 시범 운영 후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시 대여사업입니다. 학우분들의 전자기기 방전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단위체의 행사 진행 시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여사업을 진행합니다. 상주 시간에 총학생회실을 방문하시면 보조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플로터, 캐노피, 듀라데이블, 불법 카메라 탐지기기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대면학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학우분들께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야식판매사업이 10월 18일 ~ 10월 19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일상복지국장의 보고안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 항상 복지에 신경 써주시는 일상복지국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불법 카메라 전수조사 관련 질문. 방금 우연히 R&D 3층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61대 알파총학생회 스티커만 붙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셔도 학우분들이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건 그런 스티커라 생각하고, 그게 거의 몇년 전의 스티커라 학우분들에게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하는 구조가 학생회에 요청드리면 단과대 학생회에서 조사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청 후 전수조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일상복지국장 박수연: 일단 102관 말씀해주신 부분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운위와 총학 모두 함께 진행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스티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102관의 경우 약학대학 관할 구간이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총학생회가 단과대에 요청드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총학과 중운위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가 함께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외에도 총학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심가는 구간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신화입니다. 강의실 와이파이 속도 개선 건입니다. 1학기 단위요구안에서 강의실 와이파이 공유기가 3년 지나면 낙후되므로 학우분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일상복지국에서 학교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중앙도서관 건인데, 중앙도서관 의자 교체와 와이파이 등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와 협의하여 개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주로 시설과 관련된 내용 질문 주셨는데요. 대면학사가 저희 임기

중 전환되어 시설개설과 관련된 설문조사 진행하여 개선 진행 중입니다. 생활관, 셔틀버스 등 일상복지국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등 여러 시설 관련 개선 사항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과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학교측과 앞으로도 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분 더 발언이 가능하고 다음은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부 학생회장 심아현: 세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 야식 판매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에 공지되어 학우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인데 SNS만 올라간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공지가 많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 싶이, 310관에 알파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셔틀버스 관련 건인데요, 해당 건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아서 이용방법이나 정류장 등 공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복지국장 박수연: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야식판매사업은 전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랑 혼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전달 방식에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야식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틀 간 진행하며 수량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부분 불법카메라 탐지 부분 계속해서 상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재부착 예정이며 재탐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강조해서 전달했고, 협의 진행 후 저희 차원에서도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비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발언권 추가를 위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퇴하시는 대표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의사정족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184명보다 여기에 계시는 대표자수가 더 적으면 의결할 수 없으며, 회의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자분들께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대표자분들은 관련 내용을 단독방을 통해서 해당

내용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에 참여해주신 인원 수가 의사정족수보다 적어서 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의사를 표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2인에게 추가 발언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191명 중 찬성 155표, 반대 18표, 기권 18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발언권 요청하셨던 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부 창제반 학생회장 곽서현: 일상복지국 사업 중 1학기 기말고사 야식판매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2페이지 회계내역 114번, 115번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일상복지국장님 계좌로 입금 후, 총학생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수입을 총학생회 계좌로 바로 입금받지 않고, 해당 절차를 거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상복지국장 박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계좌에서 학생회비로 직접 입금이 될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70분 넘게 계좌로 입금해주셨는데 그렇게 될 때 회계 정리에 많은 복잡함이 생겨서 제 계좌로 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해 내역을 0원으로 만들고, 즉시 입금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무국장에게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으로 질의요청하셨던 분?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명수현: 추후 인수인계 시 전달하면 좋을 듯 해서 발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정기전수 조사시 계속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 매학기 붙이다보니 떼어진 스티커도 많고,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올해 2학기에 실시될 때는 이전 사업들과 달리 더 작게 제작되어서 떼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 사업 진행 시 이러한 부분 개선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복지국장 박수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분 반영해서, 모든 구역에 스티커 부착

하고, 유지 가능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인 발언권 요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발언권 요청이 없어 일상복지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국 보고입니다. 홍보소통국장께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소통국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홍보소통 국장 간호대학 간호학과 19학번 이현정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홍보소통국은 총학생회와 학우분들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발행물을 디자인하여 학우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한 소통을 진행합니다. 홍보소통국 보고안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sns 운영 및 소통창구 관리입니다. 학우분들께 총학생회와 학교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각 소통창구를 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가지 SNS 및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SNS는 온라인 홍보가 이루어지는 중심 창구로서, 총 2만 7천 여명의 학우 분들께서 소식을 받고 계십니다. 임기 시작 이래 총 3가지 SNS를 통해 카드뉴스, 결과보고를 비롯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 총학생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제휴 소식, 교내 행사, 학생 의견 수렴 등의 소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 높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홍보의 성격을 띤 포스터, 카드뉴스 등의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물의 경우 온라인 홍보 창구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진행합니다. 캠퍼스 내 주요 장소에 포스터와 플랜카드 부착, 물통 배너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넷째, 마스코트 푸앙 관리입니다. 학우분들께서 중앙대학교 공식 마스코트 ‘푸앙’을 친숙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마스코트 소비 문화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굿즈배부 이벤트 입니다. 2022-2학기 전면 대면학사를 맞이하여 2022년 9월 6일 개강인사 진행 시, 마스코트 푸앙을 활용한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달무리와 협업하여 진행하였고, 굿즈 목록은 떡메모지 2종, 더스트백, 리무버블 스티커 4종, 메모패드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국 보고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홍보소통국장의 보고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재학부 비상대책위원장 배운서: 우선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NS 운영 및 소통창구 관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과/부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하다보면 총학 측에 지원 요청 또는 행사 관련 문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28에 관련 문

의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드린 적이 있는데, 10/4, 즉 일주일 이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용 가능한 소통창구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만 운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늦었던 원인을 여쭙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홍보소통국장 이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부서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답변이 늦었으며, 이에 대해 학우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각 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각 위원장님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SNS 관리 시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임기 끝까지 학우분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소통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분 추가질의 하신다고 하셔서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아 제가 비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화학과 학생회장 김규빈: 안녕하세요, 화학과 학생회장 김규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상복지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홍보소통국에 전달이 잘 되는지, 그게 홍보가 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야식판매사업 같은 경우, 다른 공지들은 과 공지방에 전달이 잘 되는데 야식판매사업은 카카오톡 공지방에 전달이 잘 안 됐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각 국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마스코트 푸앙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총학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마스코트 푸앙을 활용해서 과 안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마스코트푸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익성 사업이 아닌 경우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해당 내용은 총학생회와 학교 본부가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국과 국 사이의 홍보 관련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다양한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학우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와닿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한 홍보 방법이 더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정보를 저희 총학생회가 단과대, 그리고 학과에 요청하면 이외에도 단과대에서 요청하신 사항들, 학과 자체 공지들을 비롯한 많은 내용에 학우분들께 피로감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너무 많은 공지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야식판매사업과 같이 학우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의 경우 각 학과 단톡방을 통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정족수까지 많은 인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리해 주시는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서 책임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홍보소통국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다음으로 회계사무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무국장께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무국장 김창은: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회계사무국장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학번 김창은 학생 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회계사무국은 총학생회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및 사무 관리를 통해 총학생회비의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먼저, 회계사무국은 회계 내역 및 증빙서 세부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비의 운용은 총학생회의 어느 사업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학우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학생회비 사용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내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처리하고 영수증 정리를 통해 회계장부를 만들어 회계내역과 영수증 증빙서 파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매달 1일, 중대중심 홈페이지 <학생자치 - 총학생회 회계 및 단과대 회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회계내역 뿐만 아니라 영수증 증빙서 파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알 권리와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TF 구성입니다. 2021-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중앙감사위원회 지위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이고 폭넓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2-2학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편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학우 대상으로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TF 참여자를 모집 후 선발하여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중앙감사위원회 체제의 문제점, 감사 체제의 장점 및 현 실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중앙감사위원회를 폐지하되, 순기능 및 장점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중앙감사위원회의 설립 목적이었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회칙 제11장 제정 안에 최소한의 회칙으로 명시한 제정안을 제시하여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TF 의견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회계사무국장의 보고안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회계사무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위원회의 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위원장께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문화위원장,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18학번 변이섭입니다.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문화위원회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우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학내 문화를 활성화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중앙대학교 고유의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학우분들과 함께 고민하여, 대학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음향/조명 시스템국, 홍보기획국, 문화기획국, 문화복지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조정회의입니다. 공간조정회의란 교내에 산재한 학생자치공간들을 교내 소모임, 학생회, 동아리 등에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의입니다. 공간조정회의에는 사전에 신청한 단위체의 대표자만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공간조정회의가 담당하는 공간 수는 실외 2개, 실내 4개로 총 6개이며, 개최 주기는 2달에 한번, 매 회의마다 약 100명의 단위체 대표자께서 참석해, 약 2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합니다. 6개의 공간에 대해, 동일한 공간을 신청한 단위체 대표자분들끼리 6개로 나뉘어 회의를 진행하며, 각 자치공간마다의 특성에 맞게 회의방식을 달리합니다. 공간을 조정하는데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국장들이 각 회의 현장에 상주하며 규칙 위반 여부나 부정행위를 점검하며, 여러 민원사항들을 해결합니다. 공간조정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중대중심에 게시하고, 공간들의 청결상태,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회의 결과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취소된 시간대에 대해서는 학우들에게 다시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7개월에 대한 공간조정회의를 완료하였으며, 11/12월 공간조정회의만을 한차례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대여 사업입니다. 시스템 대여란, 문화위원회가 소유한 무대 음향, 조명 장비들을 학우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대여 문의가 접수되면, 장비 사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보증금 납입 확인 및 대여 장부 작성 후에 대여를 진행합니다. 반납 시에는 파손 여부 확인 후 보증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대여를 마무리합니다. 장치 운용에 대한 인력을 요청할시 시스템국장이 직접 행사현장에서 오퍼레이팅을 맡기도 합니다. 사범대학 해오름제, 지식경영학부 체육대회, 의과대학 강의, 배리어프리 영화제, 첼로 버스킹 공연, 등 총 5건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버스킹에 문화위원회의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외부 용역 및 시스템 입찰에 대한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위원회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운용법을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달의 제휴 이벤트입니다. 이달의 제휴는 매달 문화위원회가 제휴 서비스를 유치

해, 학우분들에게 홍보하여, 캠퍼스를 벗어난 문화 생활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참여 비용도 절감해 부담없이 교외 문화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7월 노들섬 피크닉 세트 할인, 8월 서울미술관 입장할인, 방탈출카페 입장할인, 9월 비누공방 체험할인, 10월 사진관 할인, 대학로 연극 관람할인, 등 총 6건의 제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LUCAUS 개최입니다. 1학기 봄 대동제에 이어 2학기에는 LUCAUS를 개최하였습니다. LUCAUS는 봄 대동제와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개최하였으며, 학우분들로 이루어진 축제기획단을 모집하여, 축제 기획, 홍보, 행사 진행 및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축제기획단은 사무총팀, 광장총팀, 홍보총팀, 공연총팀으로 구성하여, 총 65명의 단원을 선발하였습니다. 7월 25일 축제기획단원 모집 접수, 7월 27일 모집 결과를 발표, 8월 3일에는 발대식을 진행하여, 10월 11일 해단식을 진행하기까지 총 70일간 축제기획단이 교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본 축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거리문화제, 광장 기획전, 플리마켓, 푸드트럭, 굿즈 및 축제티 배부, 음악회, 플로깅, 버스킹, 본무대가 있으며, 본무대는 동아리 본무대팀 공연, 청룡가요제, 응원제, 학우참여형 무대기획전, 아티스트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축제 직전의 2주를 사전 축제기간으로 지정해, 인스타 필터이벤트, 축제 소문내기 이벤트, 역대 로고를 활용한 게임, 루카우스 알파벳 보물찾기 이벤트, 응원이 알리기 이벤트, 아티스트 라인업 추리게임, 등 총 6건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여 축제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학우분들께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룡연못과 310관 지하3층 옥외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310관 1층에는 포토부스를 설치해, 학우분들이 일상에서 축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LUCAUS는 광장에서의 소규모 부스의 한계를 넘어, 자이언츠 구장의 공간을 넓게 활용해 안전하게 역동적인 연출이 가능하도록, 광장 기획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펀치기계, 농구게임, 축구게임을 포함하여 5개의 코스를 연달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기획전 사업을 통해, 홍보팀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특설 홍보물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LUCAUS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게시물과,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Q&A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기획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본무대에서 댄스나, 밴드와 같은 퍼포먼스 공연 외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우분들도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하여, 무대를 다채롭고 유쾌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문화위원장의 보고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사정족수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원이 확인되고 있어서, 의사정족수보다 인원이 적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과대와 학과 대표자께서는 학생 대표자분들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한 인원이 다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잠시 퇴장해 있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대표자들께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후에 5분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현재 앉은 자리에서 잠시 대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휴게시간이 아니라 회의를 잠시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자분들께서는 잠시 정숙하신 상태로 대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스태프분들도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자분들께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확인을 곧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정숙하신 상태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위원회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창제반 3학년 대표 김해준: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창제반 3학년 대표 김해준입니다. 축제 거리부스 프로그램 개인정보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위원회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리부스 지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정보 명시나 동의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축제가 끝난 이후 6월 달에 거리부스 대표자가 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과제를 위해서 거리부스 대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광장 축기단축에서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돌린다는 문자였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거리부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집 후 파기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거리부스 모집을 하게 되면, 거리부스 해당 콘텐츠 담당인 팀장이 해당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열람권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거리부스 대표자들을 이제 독방에 초대해서 거리부스 공간 조정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집된 정보로 독방에 초대하는데, 그때 카카오톡 프로필을 저장했을 때, 추후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더라도 카카오톡 친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공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해당 건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 미흡한 점이 존재했던 것이고, 어떤 인원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 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였는데 너무 잘 진행을 해주신 것을 목격을 해서 우선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

문을 드릴 것은 이번에 진행된 오프라인 플리마켓 관련된 질문인데요, 2019년에 오프라인 축제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했을 때 입점비와 관련해서 회계문제가 붙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회계내역을 봤는데 회계내역 상으로는 플리마켓 입점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드렸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입점비 같은 경우에 총학생회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회계내역 결산에 올리진 않지만 앞에 입점비 사용 증빙서가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회의 종료 후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저희가 현재 마지막 발언권 부여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발언권 부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홍보학과 부학생회장 나승준: 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학과 부회장 나승준입니다. 제가 공조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몇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조의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방식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두 달 묶어서 공조의를 진행하는데 한번 진행할 때마다 2시간을 기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혹시 개방 관련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개방이 되었는데 유독 학교 체육관만 지금 개방이 안 된 상태라서 이 부분 공조회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혹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부학생회장 나승준: 예전에 제 기억으로 공간조정회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시간대에 대표자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대로 배정해서 더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과거 대면으로 공간조정회의를 진행했던 19년도 얘기이신가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 공간조정회의에 있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방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각각의 장단점 분석하고, 적합한 방법 고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조정회의는 두 달씩 묶어서 진행되는데요, 매달 진행하면 소요되는 것들이 있어서 두 달씩 묶어서 진행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학우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 부서가 좀 다른데요. 학생처 소관으로 총학생회가

공간조정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체육관은 사범대학 소속 관할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조정회의를 총학생회 측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대여가 필요할 경우에 사범대학 측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광고홍보학과 부학생회장 나승준: 일반동아리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확인해보고,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학생처에 확인해보고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현재 세 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분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네 분 추가 발언권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자 총 다섯 명 확인)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대표자 5인에게 추가 질의권, 발언권 부여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석 대표자 184명 중 찬성 148표, 반대 14표, 기권 22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발언권 의견이 가결됨에 따라서 추가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의사정족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를 위해서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번에 모아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이 점 참고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발언권 요청하셨던 대표자분들께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예림: 두가지 여쭙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103관 중문 앞을 대기소로 활용하였는데, 축기단 질서 유지할 때 질서 유지 해주실 때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103관 내에 재활용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 미화원분들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이 부분 인계 부탁드립니다. 임시 대기소로 사용되다보니 학우분들이 일찍 아침부터 대기하시면서 돛자리를 까는 등 간호대 학

생들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사전에 말씀해주셨으면 학생회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는 공지라고도 했을텐데 이부분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인계 부탁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간호대학 중문을 임시대기소로 사용하면서 해당 공간에 대한 면적을 고려하였지만, 생각보다 계산했던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사용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임시대기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될 지는 예상 못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간호대 학생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아 대표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총학, 축기단 모두 우려했던 부분인데 총학과 축기단이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간호학과 D반 2학년 대표 박현우: 현재 문화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문화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요, 문화위원장님께서 진행/완료된 사업에 대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에 있어서는 문화위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학생 대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조정회의에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올해 세번의 공간조정회의를 모두 참석했을 때 조정시간이 2시간을 넘겼고, 자신의 조정시간 외에 시간이 많이 뜨게 된 채 무한 대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동아리 대표자들이 피로와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간조정회의에서 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데요, 문화위원회가 특정 동아리에 특혜를 주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중앙 축구동아리 리00배 축구대회 개최시에, 타동아리와는 어떠한 사전적 논의를 하지 않고 대회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에게 공간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셨어요. 타 동아리는 공간조정회의 당일 아침에 문자로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동아리 대표자분들께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고 또 우선권,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조정회의 방식은 기존에 대면 학사 시절에 공간조정회의를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를 저희가 차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각 요일별로 자이언츠 구장과 대운동장 공간 획득 희망하는 단위체 대표자들이 나와서 협의하고 적고 이제 퇴장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그동안 유지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스프레드시트로 해서 한 경우도 있고 선착순으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 각 단위체 대표자들끼리 직접 대면으로 이야기 하면

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회의 진행을 그런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매우 회의가 길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달치를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자이언츠 구장이랑 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획득하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보니까 다른 공간 획득 희망단체들이 다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을 더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직감하고 있고, 앞으로 회의장에서 만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받는 식이라던가 요일 별로 신청을 세분화해서 받아서 회의장에서 각 단위체 대표자들이 최소한의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저희가 공간조정회의 방식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추가적으로 두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의 일환으로 저희가 범중양인급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동아리분들께서 그 대회 일정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보실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느정도의 특혜를 드렸던 것이고, 특혜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공간 조정회의에서 단위체의 공간 획득권을 보장해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늦게 그 상황을 전파해드린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 제가 마이크 잡았구요, 당연히 저보다 문화위원장이 공간조정회의라던가 축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저는 책임을 지는 직책에 있으니 관련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인데요 우선은 다시 한번 공간조정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안을 하고 그 방법을 이번, 늦어도 다음번 공간조정회의에서 제대로 진행될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리베로배 축구대회와 자이언츠 농구대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특혜 라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인데, 학교 전체 인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총장배 축구대회를 이번에 진행하지 않고 동아리 급으로 해서 리베로배 축구대회와 자이언츠 농구대회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모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대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학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간을 배정을 했던 것이었고요, 이 부분을 사전에 공간조정회의에 참여하시는 다른 동아리분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안건 문화위원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조정회의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서 발언권 요청하셨던 대표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하서혜: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하서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제 진행 관련하여 드릴 말씀 있어 발언권 얻게 되었습니다. 전 문화위 및 축기단에서 지

속적으로 동아리연합회와의 연락이 없이 중앙동아리와의 컨택을 진행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자주성을 침해 당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5월 축제 때 축기단에서 총장배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자 동아리연합회와 연락 없이 중앙동아리 이름인 리베로 배 자이언츠 배 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사가 진행이 된 후에야 동연이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운위에서 저희가 축제 기간에 동아리와 협업을 진행하게된다면 동연에 최소한의 연락을 취해달라고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진 루카우스에서 관현악 동아리인 루바토와 오케스트라를 진행할 때에도 축기단에서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닌 루바토에서 축제를 함께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대리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몇개의 동아리에게 동아리박람회 차주에 진행하는 거리부스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동연에 얘기하지않고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아리와 행사를 진행하고자할 시 동아리연합회에 최소한의 연락을 진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중운위를 통해 몇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립니다. 후에 축기단 인수인계 시 해당 내용 인수인계 진행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제 진행 중 공정성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특정 동아리를 선별하여 접촉하였고, 연락을 받은 동아리는 해당 기회 제공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오디션을 통해 축제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성 캠퍼스 축제에서도 축기단이 특정 동아리를 선별하여 접촉하여 무대 공연 기회를 제공해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추후에도 이러한 일 없도록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해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추가로 봄 축제에 중앙동아리 누리울림에게 대여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한 전달 받았습니니다. 빠른 반환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이해를 했구요. 우선은 동아리연합회의 자주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아리와의 연락을 통해서 축제의 일정 콘텐츠를 진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중앙동아리, 축기단의 연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기단이 동연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동연이 중동이 동아리 관할하는 기구로서 축기단으로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동아리로부터 보고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축기단에서 동연에 해당내용을 전달했어도 좋았겠죠. 하지만 더 적합한 방법은 진행된 회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본무대 오디션에 있어서 애초에 오디션 없이 저희가 특정 동아리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그 발상 자체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다 라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저희는 방침을 바로 번복하고 오디션을 진행하겠다는 공지를 올렸고, 애초에 그런 발상을 한 이유는 미리 동아리들과 협력하여 기획적인 무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저희의 사과의 의미로 선발팀 수를 3팀에서 5팀으로 늘렸으며, 시간대를 해당 무대 팀들 대표자 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시간대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리고 해당 오디션 방식을 촉박한 기간을 감안해 영상 제출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누리울림의 기자재 반납에 관한 건은 제가 그 당시에 공연팀장을 맡았던 학우분께 확인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5/16,17에 누리울림 대표자 분께서 두차례 공연 때 기자재 한 개 반납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때가 축제 전주였고, 그리고 공연팀장이 그 다음 주 봄 대동제를 일주일간 대체하느라 아마 미처 신경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 못했다고 제가 직접 답변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서 전달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잊어먹은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축제 종료 후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다음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어진: 우선 개인정보 관련해서 1학과 동일하게 2학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발생해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 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우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와 사회과학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1학기에도 동일하게 사회과학대에 학과부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 했었고, 해당 내용을 중운위 차원에서 전달했습니다. 중운위에서 문화위에게 전달해주신다 하였고 이 과정에서의 이 내용이 잘 전달 되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2학기에도 동일하게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역임할 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사과대 소속 학과부에 대표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리부스 관련해서 제 연락처를 공연팀, 부스팀장님, 거리광장팀장님과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고요. 해당 내용을 1학기 때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기억 하는데, 2 학기에 동일한 내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질의보단 건의사항에 가깝습니다. 아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분들 대다수에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축제 관련 공지에 대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번역본이 단 한개도 올라오지 않아서 단과대 차원으로 연락을 오시는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축제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해당 내용은 2년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진행된 축제인 만큼 더 많은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번역은 굉장히 기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메인포스터 조차도 번역되지 않아 유학생분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축제 혹은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는 특히 이렇게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즐길을 하고 싶으시다면 번역 문제가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저희가 제대로 미처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할 때 있어서 문화위 뿐만 아니라 총학도 구글폼은 사전에 동의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문화위 축제나 어느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런 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 관련해서는 축제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도 유학생 문의 많이 받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체감

했습니다. 3년 만에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를 챙기느라 유학생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축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문학과 1학년 대표 이환희: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문화위원회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공간조정회의, 이달의 제휴, 시스템 등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정보 접근성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인스타그램에 현재 18개, 23개 등의 좋아요 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많은 학우분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홍보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원장 변이섭: 현재 공식 창구는 인스타그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산하위원회가 독자적인 인스타그램을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비대 위 본 계정은 팔로워 수가 매우 많고 좋아요도 되게 많이 받는데, 저희 산하위원회의 산업을 홍보하는 산하위원회 계정은 저조한 팔로워와 반응 수를 받고 있음. 그래서 학우분들이 당연히 얻어야 하는 공간조정회의 관련 정보 같은 경우 중운위 의결을 통해 학과 카톡방에 공지하고 있고, 시스템 대여나 이달의 제휴 같은 경우 그에 비해 접근성이,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중운위 의결을 통해 학과 톡방에 공지하지 않았음. 앞으로 중대중심이나 각 학과 톡방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들도 다 홍보하는 것들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거기 한 분 손드셨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이성화: 문화위원회의 보고안전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받았던 시간을 가졌고, 학우분들께서 위원회와 관련해 비판할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결할 부분에 대해 의결할 것이지, 위원장님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책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나 등의 발언은 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표자로 나온 만큼 발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다음 보고 순서는 인권복지위원회 순서입니다. 인권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복지위원장 박도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인권복지위원장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21학번 박도윤, 전체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사업과 건강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집 11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복지위원회 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내 휴게 공간 조성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중앙도서관 내 휴게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우분들께서 불편을 겪으신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이에 상반기부터 학술정보원과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 학우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학술정보원 측과 꾸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올해 12월 중앙도서관 3층 참고자료실 위치에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기 다른 테마의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둘째,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학기 사물함 신규 신청 및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료 미납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고장·파손 사물함 전수조사를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자로 인한 사물함 관리의 차질이 예상되어 사물함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신청자-배정자 간 소통과 이용료 납부 현황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물함 오픈라인 신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셋째, 캠퍼스 규찰대 '의혈지킴이'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캠퍼스 내 치안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의혈지킴이는 '캠퍼스 관리 규정' 위반 사항을 제재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우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순찰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대학생 순찰대로 선정되어 이번 달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혈지킴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한가위 귀향버스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은 학우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편안히 귀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우등·준우등 버스 노선을 확대하였고, 연휴 직전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학우분들께서 귀향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장애 학생용 수요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우산·체온계·절단기 대여사업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학기 초, 부분 대면 학사가 재개됨에 따라 인권복지위원회 대여사업을 운영합니다. 학우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

업의 세부 방식 등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성년의 날 행사, '빛나는 너의 성년을 응원해!'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성년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학우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그 중 26명의 학우분들을 초청하여 상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일곱째, 비건 학식 재개를 위한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내 비건식 제공 재개를 골자로 상반기부터 대학 본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법학관 학생식당 운영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비건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성분 및 조리 과정 또한 모두 확인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비건 학식 섭취를 희망하시는 학우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신고창구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 현황 모니터링 및 홍보를 진행합니다.

아홉째, 학생대표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대표자들이 각자의 차이를 이해•존중하는 관점을 가지고, 2차 피해•가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치유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2학기 성폭력 예방 교육은 전체 학생 대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 10월 2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째, 선거운동본부 대상 인권질의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제안서 발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인권 관련 사업 계획 및 정책 기조를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의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재선거를 진행했던 총학생회 및 예술대학 선거운동본부로 발송하였으며, 11월 선거 시 내용 및 구성 등을 수정•보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열한째, 학내 노동자 연대 사업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 공간 시설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와 논의를 진행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파악한 후 대학 본부에 전달하였으며, 각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의 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 본부와 수시로 소통하여 시설 및 근로 조건의 개선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째, 인권문화제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내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캠페인에서 '비거니즘'을 테마로 한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의를 전달하고, 각종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사업 시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의 후생 복지회계를 통해 조성된 후생수익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학기 장학 관련 사항이 개편될 예정이며, 학생지원팀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선발 공고 및 서류 취합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면 학사가 재개되고, 각종 행사 또한 대면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권복지위원회의 상시 사업, 특히 복지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사업 또한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임기 말까지 인권 사업과 복지 사업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자치의 발전을 위한 학생 대표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인권복지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인권복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네 분 질의 예정이신데요, 세 분 먼저 발언권 드리고 나서 추가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님부터 발언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 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유진입니다. 보고만 들어도 많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주고 계셔서 정말 학우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문드릴 내용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성평등 위원회 폐지가 가결된 이후에,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가 인권복지위원회에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 대자보 부착된 것을 봤는데 혹시 이에 대해 인권복지위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 외에도 학생대표자께서 성폭력예방교육처럼 이제 이전에 성평위가 맡고 있던 업무가 몇가지 더 인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인권복지위원회는 성평위 폐지 전에도 일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학운위만 하더라도 성평위 폐지 이후 기존 성평위의 업무가 인복위에 인계되는 것이 업무 과중이 되는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복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곽도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학내에 부착된 대자보의 내용을 저희 측에서 파악을 했는지, 즉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 창구와 같은 창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사건은 인권복지위원회 측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업무 과중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으나 기존 성평위에서 인권복지위원회로 인계가 된 사업들은 학우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총학생회 내에서 포괄적인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인권복지위원회가 그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우들의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해당 사업은 사업의 업무량

이나 그런 과중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현장에서 작성 중인 속기록이 발언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조금만 더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업무 배분 권한은 총학생회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업무 조정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관련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업무가 인권복지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 정말 부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미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시겠습니까? 뒤쪽 먼저,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 안녕하십니까.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이라고 합니다. 아까 의혈지킴이 업무도 이제 인권복지위원회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혈지킴이가 학교 내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해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의혈지킴이는 지킴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우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율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역할인데, 학우분들께서 술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뺨뺨로 광장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돛자리를 펴고 음식 먹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뺨뺨로 광장에서 맥주를 마시던 도중에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학칙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당장 버리지 않으면, 저희가(의혈지킴이가) 한 바퀴 돈 이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강압적으로 술을 버리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혈지킴이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곽도윤: 우선 의혈지킴이가 강압적인 태도로 규제를 가했다는 것에 대해 인권복지위원회가 의혈 지킴이 사업을 대표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혈지킴이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의혈지킴이는 캠퍼스 관리 규정, 즉 학칙 상 금지된 사항에 대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행위도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의혈지킴이 순찰 시는 물론이고, 수시로 의혈지킴이 분들에게 친절할 태도로 학우분들을 대해 주실 것을 항상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제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의혈지킴이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킴이가 학우분들을 진정으로 돕는다는 그런 느낌을 드리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 발언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추가 의결은 해야 하겠네요. 제

일 끝에 계신 분 말씀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 변은주: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 변은주입니다. 저는 한가위 귀향버스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한가위 귀향버스 노선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17개지역으로 배치되었고, 귀향버스가 서울 고속터미널 기준 약 50~60 프로 할인된 가격으로 총 20대이상의 버스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귀성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학우분들을 위한 해당 복지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해당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귀성길 교통편을 잡는 것이 힘들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데 제주도만 관련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귀성길 관련 복지혜택에서 제주도 진행된 적 있는지, 그리고 물론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과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제주도와 관련해서도 귀향길 귀성 지원 복지를 지원 진행할 생각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곽도윤: 말씀해주셨던 바와 같이 2019학년도까지 제주도 관련 사항이 전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주도와 같이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배, 비행기 방식으로만 이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 구상 시 공항 노선 만이라도 신설하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고, 차라리 지하철과 같은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편이 버스보다 시간과 금전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주도행 노선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제주도 학우분들 복지를 위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 사항이나 노선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3인 지나서 추가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질의를 요청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계십니다. 세분 계십니다. 3인에 대한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대표자 3인에 대한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부여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3인에게 추가 발언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석 인원 188명 중 찬성 224표, 반대 24표, 기권 29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발언권 안건 가결에 따라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소통창구들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해소하시지 못하신 학우분들이 계시면 언제나 총학생회나 각 산하의 sns 통해주시면 친절하고 성의있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언권 요청하신 분들께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 네, 안녕하세요. 인문대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입니다. 노고가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서라벌홀의 미화노동자 휴게공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권복지위원장 곽도윤: 네. 서라벌홀의 미화노동자 휴게공간의 경우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옥상은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제가 알기로 냉난방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역시 옥상은 실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해있어서 적절한 휴게공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서라벌홀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지만, 본부와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번 인권복지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 인수인계를 통해 마스터플랜까지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곽도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관 미화 노동자의 경우 공간의 접근성이라든지 내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점이 서라벌홀 말고도 공간 이동이 시급한 방화 미화 휴게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측과 계속해서 논의중이지만, 본부 측에서도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간확보를 하여 미화원분들이 최대한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 취하실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바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수조사도 다시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화노동자분께서 상당히 많은 피로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관리된 사항들은 보다 철저히 인수인계를 해서 후대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확실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서라벌홀 관련해서는 총학생회와 인문대학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요청하신 분 계신가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우현경: 네.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우현경입니다. 지난번 학내에 대자보가 부착되었는데, 연대 단체에는 해체된 성평등위원회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성

평등위원회가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요. 총학생회 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관해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2021-2학기 폐지된 기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구요, 여러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
고 방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발언권 획득하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D반 학생회장 홍지완: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D반 학생회장 홍지완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물함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여쭙보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비고 칸에 대한 표
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정확한 서비스의 단가와 구체적인 개수에 대한 표기가 모
든 항목에 친절하게 나열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하나 건의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
로는 사물함 관리 요원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 사용 내역에서 가장 큰 비
중의 지출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인 9,160원을 채택하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27일을 일례로 해서 비고칸을 보면 관리원 4분의 업무
시간이 서로 다 상이합니다.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업무시간의 구분의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측
정하고 있는지와 업무 특성 상 채택근무 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학교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측정 기준을 여쭙고 싶고.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본인 재량에 따른 자율적
인 업무 방식인지, 가이드가 사전에 제공되어 그 틀에 맞게, 시간에 맞게, 197시간 자체가 애초
에 원래 계획된 것인지 여쭙고 싶고, 딱 두가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16일에
있었던 125페이지쪽의 내역인데요. 중간 부분에, 9월 16일 중간 부분에, 고장/파손 사물함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연달아서 두 개가 있는데, 각각 구분되어야 했던 이유, 이런 것들도 마
지막으로 제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복지위원장 곽도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단가와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임금된 건
수에 맞게 그렇게 표기를 하였던 것이구요. 이제 관리원 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 별로 뭉
뚱그러져서 표기된 바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출금된 금액만을 작성한 것이고 세부 근무
시간 영수증 첨부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다 가시성 있게 단가와 수량을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우선 관리원 급여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채택을 하
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4명의 근무 시간이 상이하고, 그것의 측정 기준이 무엇이냐라
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일단은 저희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이것입
니다. 시험기간 1주일 전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물함 신청 철거 일
과 같이 조금 더 추가적인 근무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부분만 안내를 하고 있구요. 그 이

외에 이제 근무하는 요일이나 근무 횟수에 대해서는 관리요원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되는 날이 좀 더 많으신 분은, 조금 더 많이 근무하시는 날도 있구요, 그 내에서 대타 교환도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상이하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물함 배정업무나 각종 민원처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제 사무실 관리요원들은 인권복지실에 상주하면서 철거된 물품을 찾으러 오시는 학우분들께 철거된 물품을 드리거나, 인권복지위원회의 대여 사업을 보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보다 현장 근무가 적합한 형태입니다. 되도록 빈 시간 없이 상주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안내문자가 연달아 두 개가 발송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자 발송 건이 원래의 건이었는데, 거기 이제 날짜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정문자를 추후에 보낸 것이 안내 문자가 두 번 발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앞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발언권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추가적인 발언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인권복지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권위원회의 보고 순서입니다. 장애인권위원장께서는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권위원장 편지희: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장애인권위원장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21학번 편지희, 전체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2020년 중앙대학교 학생 사회의 목소리로 설립된 총학생회 공식 기구로서, 학내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증진하고 장벽없는 배리어프리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 사업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안건 페이지 126쪽에서 132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거운동본부 대상 인권질의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제안서 발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권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관련 의제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이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인권복지위원회와 연합 TFT를 구성하여 총학생회 및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질의서에는 배리어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 활용 제안서를 첨부해 후보자들의 장애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정책 기조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대상 <장애 인권 정책 제안서> 발송 사업입니다.

학생회 차원에서의 교내 장애 인권 정책의 확립 중요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 4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학내 장애 인권 정책으로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사업’ 과 ‘배리어프리한 문화적 교류 확대 사업’ 을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배리어프리 건물 지도를 제작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은 교내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고 장애학생들의 이동과 접근에 도움을 준 사업으로서 장애인권위원회는 해당 범위를 확장하여 캠퍼스 건물 내가 아닌 캠퍼스 건물 외로 배리어프리한 정보를 담은 경로지도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 배리어프리하지 못한 행사 환경을 해결하고자 각 단위와 밀접하게 자문하여 행사 배리어프리를 이끄는 문화적 교류 확대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봄 대동제 및 가을 축제 배리어프리 사업입니다.

캠퍼스 내 축제 행사가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못한 채, 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장인위는 배리어프리한 축제 행사를 이끌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구요. 이에 축제기획단과 연대하여 배리어프리존 신청 및 운영, 체크리스트 전달, 대체 텍스트 안내, 실시간 자막 요청, 축제 배리어프리 설문, 장애인권센터로의 추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장애학생이 배리어프리존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신청을 꺼려하는 상황을 저희 장인위가 파악을 하여서, 이에 따라 장애 유형에 따른 소외가 없도록 장애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공지를 발송하고, 공지사항 내에서도 장애 유형에 따른 소외가 없도록 공지하고, 또 장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손상에 놓인 학우분들도 배리어프리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넷째, 학생 대표자 대상 장애 인권 교육입니다.

학생 대표자는 캠퍼스 내에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캠퍼스 문화를 이끌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자에 올바른 장애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권 강사님으로 신흥운 강사님을 초빙하였고, 장애인권위원회는 해당 교육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기울였습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오티, 축제 배리어프리, 대학 내 선거, 학생회 및 동아리, 학내 서비스, 동아리 및 앰티에 관련한 내용을 담아 학생사회 내 장애 학생의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2021 문집> 배포 사업 입니다.

장인위는 2020년 설립 이후, 장애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그간 이어온 장인위의 고민의 흔적을 담고 더욱더 발전된 논의를 이끌고자 2021년 장인위 활동 및 세미나 내용을 담은 문집을 배포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이 대출 및 열람하실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및 법학도서관,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에 3부를 비치해두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우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회실 등에 추가 비치해두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배리어프리한 축제 운영 요청서> 공문 발송 사업입니다.

축제 행사에 있어 장애 학우, 불편함이 있는 학우분들이 문화적인 불평등에 놓이지 않도록 배리어프리를 이끌고자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9월 20일에서 9월 21일 단과대 주최로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과학대학, 통일공대, 간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배리어프리한 축제 운영 요청서 1부, 배리어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장대넷, 서배공 측에서 제작한 배리어프리한 대학 사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였습니다. 축제 체크리스트와 공지 전달 방식, 그리고 배리어프리존 운영 방식과 안내 등을

세심하게 담아서 각 단위에서 어려움 없이 축제를 이끌 수 있도록 장인위가 이끈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배리어프리 건물 지도 한글판 업데이트 사업입니다.

해당 지도는 교내의 장애, 비장애 학우분들 모두가 편하게 캠퍼스의 건물들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뀔에 따라서 학내 캠퍼스 내 공사 등을 통해 바뀌어진 배리어프리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장인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글판 업데이트본을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조사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담았고, 2021년 중앙대 서울캠 중앙도서관에 새로 설치된 배리어프리한 키오스크의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인권문화주간 배리어프리 영화 페스티벌입니다. 2022년 인권문화주간을 맞아, 장애인 권위원회에서는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를 상영하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업중에서 정신장애를 다룬 주제의 활동이 없음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주제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센터와 연대하여, 직접 기획한 사업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교육부로부터 선정받아 지원받은 전액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에는 정신병원 환자와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를 선택을 하였고, 2부에는 정신장애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신홍윤 강사님과 이관형 강사님을 초대하여 정신장애에 관해 학우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제작 머그컵, 에어팟, 조말론 상품을 추첨하였고, 현재 배송 완료 후 지급 예정인 조말론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장애 학생 교육권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본교의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사항들이 매학기 발송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교강사,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장애인권위원회 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권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성하여 현재 내용본을 제작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육권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교육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권과 관련한 장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완료 이후, 장애 학생 및 학생사회에 배포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직접 교강사에게 요청 가능 하도록 한 형태로 배포해, 캠퍼스 내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열 번째,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건물 지도의 후속 지도로서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접근성이 결여된 캠퍼스 내 경로를 파악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교내 장애 학생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건물 간 경로, 정/중/후문과 건물 간, 건물 간 배리어프리를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일러스트판을 제작 중인 단계입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로 지도를 제작 완료한 이후에 학우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피드백을 반영할 것입니다.

열 한 번 째로, 장애인권위원회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장인위는 장애 학생이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장인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측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교 본부 간의 소통을 매개하

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정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길 배리어프리 조사 및 공론화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대 장인위는 현재 서울권 10여개 대학 장애인권 단체가 정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정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겨울학기부터 1학기 초까지 각 단위별로 조사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는 통학길 배리어프리 보고서가 제작 완료된 상황입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장대넷 차원에서 공론화를 매듭지은 후, 장인위 차원에서 별도 카드뉴스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장애학생이 학교 캠퍼스를 오갈 때에 있어서 편한 경로, 불편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인위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예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대표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권위원회의 입지와 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인위는 2020년, 약 9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중앙대 학우분들의 연서명을 받아서 설립된 공식적인 학생자치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학생회의 다른 국/위원회와 달리 유일하게 장학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학교 공식 자치기구로서의 장인위의 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단에서도 학교측과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장애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위요구안을 발송하고 학생지원팀과 수차례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팅에서는 학생지원팀에서 학생 사회의 요구로 설립되었다는 당위만으로는 장학규정을 설립할 수 없고, 인권복지위원회의 인원을 늘려 장애인권위원회를 위한 활동을 편성해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인위는 학생지원팀에 장인위의 공식화된 사업 자료와 기반 자료들을 준비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나, 지금 여기 계신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의 관심 없이는 장인위의 권리 확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 대표자 여러분, 장애인권위원회는 학생 대표자 사회에서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학생 사회를 만들라는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교내 장애인권을 위해서 활동해오고, 타대학과 단체에 모범이 되기까지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위원장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단과 이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 진행될 리더스포럼까지 논의를 이끌고 가서, 학교 총장님의 승인을 얻어 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표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합니다. 학생 자치 사회의 요구로 세워진 권리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까지 학생 대표자 여러분의 지지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장애인권위원장의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는 대표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두 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주세요.

화학신소재공학부 4학년 대표 김규원: 화학신소재공학부 4학년 대표 김규원입니다. 우선 배리어프리한 중앙대학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장인위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축제 때 운영되었던 배리어프리존을 발목 부상을 당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고 나서, 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관객석 앞쪽 왼쪽에 배리어프리존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체가 원래 불편하신 분들, 혹은 부상 등으로 사용하시는 분을 꽤 보았고, 관객석이 스탠딩으로 전환되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배리어프리존의 취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연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객석이 스탠딩으로 전환된 직후 불편한 사항이 보였는데요. 저처럼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팔 등을 다치신 분들은 배리어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서서 관람이 가능했지만, 스탠딩으로 전환되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측면 배리어프리존에서 휠체어에 타신 분들은 무대쪽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축제에서는 이런 불편함도 생각해 주셔서 배리어프리존의 위치를 앞쪽 가운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높이를 높여서 잘 보이게 하는 등 노력해주실 수 있다면 배리어프리존의 조금 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축제에 비해 단과대학 축제에서는 배리어프리존에 관한 안내 및 홍보가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권위원장 편지희: 네, 우선 축제 배리어프리존에 관해서 세심한 건의사항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리어프리존의 운영같은 경우에는, 먼저 장애학생들 그리고 중앙대 학우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데 최고 가치를 두고 설치하고 배리어프리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우분 말씀대로 배리어프리존 위치를 앞쪽 가운데로 설치함으로써 모든 학우분들께서 배제되지않고, 소외되지 않는 축제관람이 될수있도록 대처하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안전이라는 최우선가치를 지키는 선 안에서 장애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축제기획단과 연합하여 해당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과대 축제에서 안내 및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진행하게 된 사업이 배리어프리한 축제 운영 요청서 사업인데요. 실제로 각 단과대 축제에서 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서 SNS에 직접적으로 배리어 프리존 안내를 발송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당 부분도 장애인권위원회가 경각심 가지고 학내 장애인권을 대변하는 자치기구로서 단과대 축제에서도 해당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배리어프리존을 가운데에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안전상 문제로 스탠딩 이후에 하중이 가운데로 많이 쏠리다 보니 앞에 하드펜스 설치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충분한 고민들을 한 이후에 내년 축제에 새로운 방안들이 고민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구요. 단과대는 말씀하셨던대로 장인위에서 공문 발송하여 그 공문을 단과대학에서 고려하여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단과대에 자치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각각 사안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장인위에서 많은 노력 기울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려 했던 분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D반 2학년 대표 박현우: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2학년 D반 대표박현우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장에서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기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장학규정 없이도 교내 배리어프리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현명한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사회가 직접 설립한 장애인권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학생지원팀의 발언에 개인적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총 세 개인데요. 우선 장애인권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현재 장인위가 장학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후에 교내에서 장인위의 입지를 다지는 것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합니다. 둘째, 아까 보고를 들었을 때는 임기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리더스 포럼으로 까지 논의를 이끌고가서 총장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총장의 승인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마지막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찌보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애인권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생대표자분들 공감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학생사회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구가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받지 못하는 장애인권위원회 처지에 대해서 이에대해서 비대위원장단에서는는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편지희: 먼저 장애인권위원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장애인권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지는것이 후에 장인위의 입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학자치기구로서 장인위가 현재 공식적으로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입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확립을 통해서 명문화 함으로써 장인인위의 규정과 입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학생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측으로부터 공인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면 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 내에 해결되지 않을경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 받을 수 있을지에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장애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포트폴리오화하여서 학생지원팀을 통해 공식화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 학생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어서 장애인권위원회 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저한테도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규정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선 설립 당시 배경을 살펴봐야하는데요. 학생 사회 내에서 긴급하게 설립이 됨에 따라서 학교와 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학교 본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학생사회에서 산하단체를 계속 만들면 이것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것이 학교 본부의 설명입니다.

저희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의 주장으로 확인된 부분은 장애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랜 시간동안 학생사회에서 인정받아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학교자치기구이니 이해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학생지원팀과의 논의에서 장애인권위원장과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 해서 명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생지원팀과의 3시간가량의 면담을 가졌었고, 해당 면담을 통해 관련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사회에서 장인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우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의지를 가지고 당연히 총학생회 책임자로서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장애인권위원회에 관한 일에 당연히 관심 가지고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다 질의 하시겠다고 비표 드신 거 맞으시죠? 네 추가 의결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문대학 비대위원장님에게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도규호입니다. 사실 장학 규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얘기일 수 있으나 제가 여쭙고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인해보았는데, 장인위가 신설된 이후로부터 다섯 번 정도의 개정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세칙에는 작년에 폐지된 성평등위원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위가 시행세칙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관련하여 장인위원장님과 중비대위원장님이 함께 학교 본부에 협조나 협의를 이뤄낸 것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편지희: 네, 장인위 장학규정시행세칙에 대해 학교본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2년동안 지속적으로 단위요구안에 장학규정을 개설해달라는 요구안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요구안 발송 이외에도 학생지원팀과의 지속 협의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학생지원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 혹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지금까지 해당규정이 개정 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비대위원장님 추가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답변인데요. 성평위 폐지된 이후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설립 당시 장학규정 논의가 없었기에 이에 관해서 어려움을 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평위 폐지 이후에 장학금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논의를 연계하여 장인위도 장학금 지급되도록 논의 중입니다. 전체 학생처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파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큰 무리가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권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준비위원회의 보고 순서입니다. 졸업준비위원장은 보고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준비위원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졸업준비위원장 창의ICT공과대학전자전기공학부 17학번 이지훈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마지막 보고 순서인만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앨범 촬영 및 앨범 제작 등 졸업 관련 제반 업무 및 학우분들께서 졸업 이후의 진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총학생회 특별 자치 기구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학기 졸업학년 대표자 회의 시행입니다. 졸업학년 대표자분들에게 졸업준비위원회의 진행 사업 및 진행 예정인 사업을 공유하며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고, 졸업앨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졸업학년대대표자분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졸업준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졸업앨범 업체 설명과 더불어 앨범을 실물로 확인하는 등, 원활한 과정을 통해 졸업앨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졸업앨범 봄/가을 촬영 및 추가촬영 진행입니다. 2022년 졸업앨범 촬영 희망자를 위해 교내 법학관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은 총 두 번에 나누어, 5월 봄 촬영, 9월 가을 촬영, 2회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단과대의 경우, 실습일정과 겹쳐촬영이 불가능한 학우분들이 있어 6월에 추가촬영 일정을 잡은 이후 해당 단과대 졸업학년대대표자분들과 업체담당자와 함께 촬영일정을 맞춘 이후 추가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레인보우 시스템 소개 카드뉴스 제작 및 공유 진행입니다. 레인보우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프로그램 등을 학우분들께 소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닌, 학우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콘텐츠는 총 세편으로 나누어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소개한 후 저학년/고학년의 모든 학우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로 구성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네 번째, LUCAUS 거리부스 ‘학위복 체험 사업’ 진행입니다. LUCAUS 축제에서, 거리부스를 통해 중앙인 여러분들께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졸업준비위원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학위복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내 총무팀으로부터 학위복 15 세트를대여하여 학우분들께서 학위복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약 300명 내외의 학우분들께서 행사를 직접 즐겨주셨습니다. 또한 이벤트에 참여하신 약 70명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도 지급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대학교 ‘포토월’ 제작. 비대면 학위수여식이 3년간 진행되며 새로운 포토월이 필요하였고, 이를 제작하여 23년 이후의 학위수여식 기간 혹은 행사에 쓰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학위수여식 기간에 포토월을 배치하여 많은 학우분들께서 만족스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학기 졸업학년 대표자 회의 시행을 10월 말에

서 11월 초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의 진행 사업 및 진행 예정인 사업을 공유하며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고, 졸업기념품을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여 2022년 졸업기념품을 선정하기 위해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 졸업기념품이었던 ‘푸앙이 가습기’의 수요가 높았고, 이에 대한 학우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업체측과의 유기적인 컨택을 통해 졸업대상자 학우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기념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졸업학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우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졸업준비위원회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졸업준비위원장의 보고 안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 부학생회장 라희수: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부 부학생회장 라희수라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간결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루카우스 거리부스 학위복 체험 사업 진행사항에 관해,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 상품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10월 7일 상품 추첨이 진행되는 스토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그 이후 상품지급 방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지금 상품 지급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졸업준비위원장 이지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0월 7일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추첨을 진행하였고 당첨 되신 분들을 한해서 디엠으로 수령방식을 말씀드렸구요, 현재도 지금 모든 학우분들께서 다 받으신 것은 아니고, 수령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 부학생회장 라희수: 혹시 연락을 받지 못한 학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졸업준비위원장 이지훈: 일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벤트 참여하였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다 추첨해서 당첨자분들께 디엠한 것이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누락 없이 연락 갔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분 있다면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학부 부학생회장 라희수: 답변 감사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문 없으므로 이상 졸업준비위원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2학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

주신 모든 대표자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장께서 폐회선언해주시겠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맡은 책임감을 다하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부재가 학생사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판단 하에 대면으로 복귀하는 실질적 중요성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 학생사회 염원이었던 한자졸업요건 완화를 비롯해 최초의 안성캠과 협의체 개최, LUCAUS 개최를 비롯한 여러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식 정상화와 중앙도서관 휴게공간 마련 등 여러가지 변화 만드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많은 대표자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표자 회의는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전학대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 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도 임기 끝까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